

#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운동...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산업부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4인가구 기준 월 30kWh 절약  
월 전기요금 7530원 절감 가능  
초·중등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대중교통 소득공제 40%→80%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 국민이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를 절감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30kWh를 절약하면 월 7530원 절감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40%에서 80%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관계부처와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 포함 모든 부처는 전 국민이 참여,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예컨대, '하루 1kWh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려

준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 문화 매체와 민간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혁신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단계를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

원 횟수도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도 구축해 효율 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를 도입해 중·대형차 연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와 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고효율 기기 보급,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와 인버터, 히트펌프 등 핵심설비 교체,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을 위한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 부문의 효율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전기·가스 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업

시설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액을 개별 가구 대비 4배로 늘린다.

산업부는 숙박시설과 목욕탕에 주로 설치돼 있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용자에 최소 신청 금액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지만 상업과 가정 부문 사용량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코트라, 인터배터리서 이차전지 수출 지원

**배터리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일대일 수출 상담회·동향 세미나 마련

KOTRA(코트라)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수출 공급망 안전화에 나선다.

코트라는 이달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3' 전시회와 연계한 '이차전지(배터리)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개최 11회를 맞이한 인터배터리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일대일 수출상담회 ▲배터리 해외시장 동향 세미나 ▲잠재 공급선 발굴 상담회로 구성됐다.

인터배터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 코트라가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462개사 1359 부스가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배터리 원재료부터 부품·장비·애플리케이션(앱) 등 다양

한 품목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장 B홀에서 15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에서는 배터리 셀·부품·검사장비·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각 분야 협력 수요가 있는 23개국 62개 바이어가 국내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인도의 대표 이륜차 제조기업인 히어로 모터콤파와 이탈리아 발전기 제조·운영기업인 프라메에서는 이륜차용, ESS용 중대형 이차전지 분야 국내기업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터리 소재 기술과 부품 관련 해외 기업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할 계획이다.

15일에 진행되는 이차전지 해외 시장 동향 세미나에서는 국가별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현황과 지역별 비즈니스 협력 기회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미국·유럽·호주에서는 변화하는 배터리 공급망 생태계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베트남과 인도에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에너지저장장치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17일에는 이차전지 원료 공급선과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코트라는 호주, 칠레 등 풍부한 광물을 보유한 국가별 잠재 공급선 발굴을 통해 우리 기업이 공급망 다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국가 수출 주력 품목인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인터배터리 연계 상담회를 시작으로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해 시장 선점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중진공 특화진단 추진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에 저탄소·ESG 특화진단

중진공, 경영혁신진단 등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저탄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정부 정책지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화진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분야별로 30개사 인원을 지원하는 특화진단은 기업 경영상의 특정 분야 애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경영혁신진단 ▲탄소중립수준진단 ▲ESG심층진단으로 구성됐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10일간 무료로 실시한다.

경영혁신진단은 기업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인 분석과 개선 활동을 통해 에

로사항을 해소하는 문제 해결형이다. 지원대상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취약한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진단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자금 신청조건이 충족되면 실태조사를 통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수준진단은 공정·장비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에너지와 탄소배출량 저감 전략을 수립한 후 자금컨설팅 등 맞춤형 정책사업을 연계해 준다. 업력 3년 이상의 에너지 절감에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진단완료 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우수 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승호 기자 bada@

## 공항 상주기업서 구직자 100명 채용

인천공항공사, 내일 '채용의 날' 행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통해 맞춤형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공동으로 해당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항 상주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케이이케이, ㈜엑스퍼트의 3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면접을 통해 ▲지상조업(㈜샤프에비에이션케이) ▲항공사 라운지 미화(케이이케이) ▲기내식 세팅(㈜엑스퍼트) 분야에서 약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60세 미만의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산업부 녹색혁신금융사업 접수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0년 간 저금리에 200억원 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날부터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저금리 융자는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이상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거나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마을기업이다.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도 포함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 R&D 전주기 지원 'BIRD 프로그램' 도입

기보 '글로벌 테크팜' 발굴 목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융자·출연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R&D) 전주기를 지원하는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BIRD프로그램은 중기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별 R&D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화·착수 후 3년 이내 연평균 20% 매출액 성장 및 수출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테크팜' 발굴

을 목표로 한다.

테크팜 기업은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높고, 고위기술 중심의 기술개발 및 기술기반의 매출성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말한다.

기보와 기정원은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R&D과제 발굴·선정과 관련해 기보에서 2억원을 보증하고 2단계 R&D 수행 관련해서는 기정원에서 최대 16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